제1장
서론 : 동구공산주의와 한국

고 성 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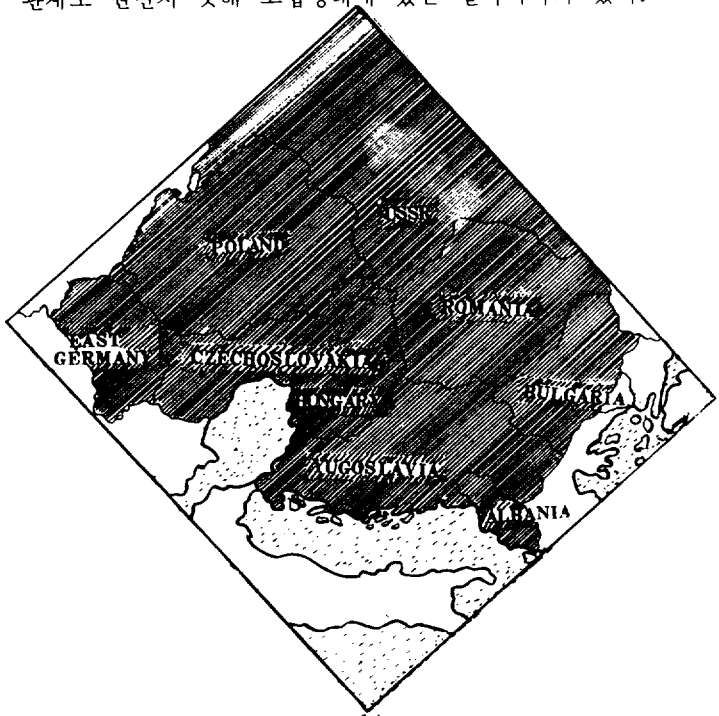
동구공산주의(東歐共産主義)는 서구민주주의에 대립되는 뜻을 가진 정치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동구공산국가는 지리적으로 중동구에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하에 공산화의 길을 간 8개국을 뜻한다. 즉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항가리, 동독 등이다.[1] 인구와 면적은 유럽 전체의 1/4에 해당되는 동구 8개국이 소련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며, 모두 공산국가들이라는 점에서 일괄적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각기 그 역사적 전통, 민족적 구성, 그리고 사회 경제적 조건이 다르고 소련과의 관계에서도 큰 차이가 있으며 그들간의 이해상충으로 서로 우호적인 관계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 동구제국은 일반적으로 말해 공산화될 수 있는 객관적 여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때문에 공산정권이 수립될 수 있었다. 그런데다 지리적으로 서구와 인접하고 있어, 서구의 다종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극들을 손쉽게 수용, 내면화 해온 역사적 전통때문에 공산주의체제가 고착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컸다.[2]

* 제주대학교 국민윤리교육과 부교수

1) 위의 나라 순서는 공산화 과정의 순이다.

2) 안병영, "동구공산주의의 체제변동", 국토통일원 통일연수소,「공산주의란 무엇인가」 1982. p.113.

동구국가들 중에는 소련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며 인구의 90%가 카토릭 신자이며 80년 여름부터 자유노조운동(솔리대리티)을 전개하여 공산체계의 본질을 훼손시킨 폴란드가 있고, 마찬가지로 소련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나 급진적인 개혁운동을 전개하다가 소련의 무력개입을 초래했던 체코슬로바키아가 있는가 하면, 공업국가이면서, 소련의 대서구전략상 소련에 대단히 중요한 국가이면서도 남북한 분단상태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개선된 분단상태를 발전시켜온 동독이 있으며 동구국가중 동서교류가 개방사회로의 변모과정이 가장 앞선 항가리가 있다. 또한 소련에 철저히 밀착되어 소련의 16번째 「소비에트」 공화국이라 할만한 불가리아가 있는가 하면 일찍부터 소련으로부터의 자주노선을 추구해 왔으며 노동자자주관리제도를 정착시켜온 유고슬라비아가 있으며 마찬가지로 소련과의 관계에서 자주적이나 북한공산정권과 비슷하게 대통령인 「쵸체스쿠」 1인에 대한 개인숭배와 족벌정치를 실시하는 루마니아가 있고 끝으로 동구국가 중 경제수준이 가장 낮고 주변 공산국가는 물론이고 중공과의 관계도 원만치 못해 고립상태에 있는 알바니아가 있다.



제 1 장 동구공산주의와 한국

우리는 그동안 동구공산주의를 지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아주 먼곳에 있는 것으로 인식해 왔다. 아마도 그 이유는 오랫동안 우리가 동구공산주의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현실적·정책적 필요성이 크지 않았는 데 있을 것이다. 냉전시대를 거치며 우리에게 동구제국은 유럽에 있는 소련의 위성국가군으로 여겨졌으며,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 그리고 평화와 통일과 같은 우리의 사활이 달린 문제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생각에서 소련, 중공, 북한과 같은 공산국가들과는 달리 관심의 농도가 얕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기에 우리나라에 있어 동구공산주의에 대한 연구는 현재 초보상태를 못벗어나고 있다. 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의 동구연구는 일단의 연구자들에 의해 체계적·조직적·지속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의 필요에 따라 비전문적·비조직적으로 그리고 간헐적으로 동구공산주의에 대한 관심이 투사되었을 뿐이다.[3] 그 결과 우리나라에는 동구공산주의에 관한 개론서는 물론이고 연구논문도 별로 많지 않은 현실이고 보면, 동구는 한국에서의 공산권 연구분야에서 가장 불모지로 남아 있는 셈이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우리의 동구공산주의에 대한 학문적·현실적 관심을 제고시키고 있다. 우선 학문적 차원에서 볼 때 분단의 극복과 통일의 대상인 북한공산주의의 본질과 미래를 조망함에 있어 연구의 주요 준거초점으로 동구공산주의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동구공산주의들의 출현과정이 북한의 공산화과정과 유사한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또 동구공산국가들은 현존하고 있는 공산주의체제 중 가장 일찍 또 가장 본질적으로 개혁과 개방을 시도해온 점에서 북한공산주의를 분석하고 그 미래를 전망하는 데 동구는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현실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우선 세계가 하나의 촌락처럼 자꾸 좁아져 가고 상호의존적이 되고 있는 국제화된 오늘의 현실에서, 신장된 국력으로 국제사회에서 무시못할 일원이며, 대외지향적인 우리나라로서는 국가이익의 측면에서 동구공산국가들에 대한 연구와 이해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시점에 우리는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

3) 안병영, "한국에서의 동구연구현황과 과제", 호남대학 동구문제연구소, 「동구연구」 1집, 1984. p.17. 한국에서의 동구연구현황과 과제에 대해서는 본서 부록 I을 참고.

더군다나 서울올림픽에 동구 8개국중 알바니아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가 모두 참가를 하게 되며 이를 계기로 동구와의 스포츠와 문화교류가 활발해 지리라 보여진다.

또한 무엇보다도 동구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한국의 대외무역이 크게 신장되면서 그동안 동구를 상대로 한 교역이 서울올림픽이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데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88년도 우리나라의 교역규모는 수출 5백10억~5백30억달러, 수입 4백90억~5백억달러로 1천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4] 이 같은 규모는 세계 10위권에 랭크되며 우리나라는 무역대국으로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무역량 1천억달러시대」가 열리면서 우리나라는 새로운 교역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데 지난 70년대 시작되어 지금은 교역액이 연 3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동구국가와의(소련포함) 경제교류확대가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세계인구의 1/3을 차지하는 공산권 시장은 지난 86년 기준으로 총 GNP가 전세계의 22.4%이나, 아직까지 교역규모는 전세계의 10.6%에 그치고 있다. 이 가운데 공산권 국가와의 상호 교역을 제외한 동서무역의 비중은 4~5%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국은 그동안 공산권과의 교역량이 증대되어 년 23억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중공교역이 60%, 소련이 10%, 나머지가 동구권 교역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동구권 시장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87년말에 헝가리에 처음으로 대한무역공사의 무역사무소를 설치했으며 88년 3월에 서울에 헝가리의 무역사무소가 개설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5] 88년 1월 대한상공회의소는 공산권지역의 경제단체로는 처음으로 헝가리 상공회의소(HCC)와 경제협력확대를 위한 업무협조협정을 체결했다.[6] 이 협정은 통상사절 파견과 무역박람회 개최 등 6개항으로 이루어 졌는데, 한-헝가리 두나라 상공회의소간의 교류확대가 실효를 거둘 경우 유고·폴란드·동독 등 여러 동구권 나라와의 무역사무소 교환설치가 이뤄질 전망이며 동구권과의 통상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4) 「조선일보」 1988.1.12.

5) Ibid. 1988.1.27.

6) 「東亞日報」, 1988.1.18.

〈표1〉 세계경제에서의 공산권비중

(단위 : 백억 美달러, %)

	GNP	수 출	수 입
세 계	1,400	211	211
공 산 권	347	23	22.5
비 율	24.8	9.5	10.7

(注 : GNP는 85년, 수출 및 수입통계는 86년자료)

〈표2〉 주요공산권국가 경제현황(86년)

국 가	경제성장률 (%)	총외채 (억달러)	인 구 (만명)	GNP (10억 달러)	1인당 GNP (달러)	수 출 (억달러)	수 입 (억달러)
소 련	1.2	270	28,150	2,356.7	8,370	970	889
불가리아	5.5	48	897	61.2	6,800	145	153
체 코	3.1	40	1,550	143.9	9,280	219	220
동 독	4.3	150	1,664	187.5	11,300	279	276
헝 가 리	0.9	151	1,062	84.0	7,920	154	158
폴 란 드	5.0	335	3,760	259.8	6,930	217	212
루 마 니 아	7.3	64	2,290	137.5	6,030	125	106
유 고	3.0		2,327	145.0	6,220	104	118
중 공	7.8	250	106,100	2,718	260	313	395

남북한의 평화공존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동구는 중요한 외교대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동구제국은 전후에 전세계적으로 세력을 크게 확대한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의 핵심세력이 되며 북한을 지원하는 중심세력이다. 따라서 동구제국과의 관계개선은 우리의 통일안보환경을 더욱더 튼튼히 하는 일이 된다.

이렇듯 동구는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섰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우리나라와 동구와의 접근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리라 본다. 우선 서울올림픽이후 스포츠와 문화, 학술과 같은 비정치적·비경제적 분야에서 교류가 촉진되어 갈 것이고, 현재 이루어지는 간접교역이 확대되면서 직접 교역으로 발전되고 종국적으로는 공식관계가 수립되는 단계로 나아갈 것이다.